

# 에너지 위기 반복된다

- 지속적 경보와 대피 강조해야 / 협회, 정책대안도 강화할 때 -



배 병 후

〈 매일경제신문 고문,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겸 편집인 〉

## 에너지위기 경보 20년

대한석유협회가 창립 20주년이라니 민간단체로 장년을 맞았다.

그동안 석유협회는 국제 석유정세가 급변할 때마다 그 존재가 부각되어 왔었다. 대체로 에너지사정이 어렵게 느껴질 때 협회를 찾게 되었다.

그래서 석유협회는 에너지위기 경보기관이자 대피요령을 전파해준 민간기구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70년대 세계적 오일쇼크 태풍때 경제기자들은 석유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정보부족에 골몰했었다. 정유회사 일부 전문가들이 떠엄떠엄 구술해 주는 정보만으로 대서특필했었다.

그러다가 동력자원부가 발족하여 정부자료가 발표되어 좀더 다양한 석유정보를 보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자료는 속보성이 떨어지는데다가 그나마 제한이 많아 에너지정세를 충분히 이해하는데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80년 9월 협회가 창립되어 다양한 석유정보를 넉넉히 제공하여 석유를 이해하고 에너지정책을

평가하고 질책할 수 있게 협력해 주었음을 잊을 수 없다.

비록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석유협회가 석유정보확산과 석유정책수립에 기여한 역할은 적지 않았다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 장년을 맞은 석유협회에 축하를 보내며 아울러 당면한 고유가시대의 석유정책과 소비합리화운동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 정보보급과 정책제시 역할

경제기자에게 있어 석유협회의 활동은 중요한 뉴스원이었다. 지금껏 협회가 제작하여 홍보용으로 배포한 월간 석유자료를 비롯하여 석유협회보, 석유연보 등은 풍부한 정보집이었다. 또한 석유이야기, 석유산업발전사, 일본의 석유정책 등 부정기 간행물도 역시 정보집이었다.

석유협회가 정부와 소비자에게 끈질기게 석유정보를 확산시키고 정책방향을 설득한 역점사업으로는 석유세미나를 꼽을 수 있다.

창립이래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석유세미나에는 토론이 있고 논쟁이 있었다.

또한 국제 석유수급사정이나 가격변동에 상관없이 석유정책에는 위기대응이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다. 물론 학계와 연구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최신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었다.

정부가 석유세미나의 권고를 무시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제안이나 결론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지만 석유협회가 창립취지를 살려 정보수집과 분석, 석유산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 그리고 관련 법령제정이나 대정부 정책건의 활동을 벌여온 성과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아울러 이같은 협회활동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 석유위기는 일회성 아니다

석유협회 20주년을 맞아 최근의 석유문제를 다시 생각하며 고뇌하고 변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와 우리의 생활방식과 석유에너지는 너무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경험을 살려 후발국 이점을 극대화했지만 석유류 다소비산업구조로 발전해 왔다. 이를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맞게 구조조정해야 한다지만 하루아침에 뜯어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익이 향상되었지만 거의 모조리 석유에너지소비와 관련되는 것이 현실이다. 석유소비국으로 세계 여섯번째, 석유수입규모로 세계 네번째라는 통계가 나와있다. 세계 최강의 부자나라인 미국과 일본과 독일 다음에 우리나라가 석유를 많이 수입한다는 사실이 바로 석유위기라고 표현된다.

석유위기는 결코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없다.

국제석유수급의 안정이나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는 석유위기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과 같이 OPEC의 감산합의가 계속 이행되고 일부 증산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의 반응이 미미할 때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석유수급 안정과 가격 하락기에 석유에너지 소비를 합리화시키면 그만큼 산업경쟁력이 즉각 강화된다. 반면에 요즘과 같은 고유가시대에 위기대응에 소홀히 하면 산업경쟁력은 물론이요 국제수지 흑자유지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소비국 처지로서는 이래도 저래도 석유위기 속에 살아간다고 각오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위기대책이나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의식은 일관성과 영속성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이다.

### 정책빈곤... 자율참여 아쉬워

석유에너지를 무섭게 여기지 않고는 고유가시대를 극복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우리 경제가 전국민의 단합속에 IMF체제를 조기졸업하면서 석유에너지에대한 경계심이 풀어졌음을 반성치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국제석유시장의 안정과 완만한 가격변동으로 석유정세에 관심을 쏟지 않은 것이 실책이었다.

최근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식을 갖고 비상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이 빈곤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OPEC과의 힘겨루기에서 어떤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고 열심히 관측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석유관련 세금 인하 요구가 표출되면 어찌느냐고 걱정하는 자세다. 석유는 손쉽고 규모가 큰 일종의 세수(稅收)산업이다. 석유산업이 세금징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구라파의 경우처럼 세율인하의 캠페인이 일어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궁색한 입장에서 범국민에너지절약운동이 일어나면 모를까 정부로서는 석유에너지수요를 줄일 방도가 별로 없다.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무대책을 호통치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 석유위기의식을 잠시도 늦춰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이 때문이다.

아울러 20주년을 맞은 석유협회가 이같은 상황 인식하에 석유에너지 위기경보와 꾸준한 대외요령을 전파시키는데 더욱 열성을 쏟아야만 한다고 믿는다. ♣